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80년대의 양돈산업을 돌아보며

우리는 지금 '80년대를 마감하면서 새로운 세대인 '90년대를 맞이하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최근의 국제정세는 숨이 가쁠 정도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냉전의 상징물인 베를린장벽이 허물어지고, 과거 적이었던 공산국가와 수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채권국이었던 미국이 채무국으로 전락하고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을 가하는 가운데 GATT는 우리나라를 BOP에서 졸업시켜 8년이내에 모든 농축산물을 개방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양돈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대의 전환점에 서 있는 것 만큼이나 큰 격랑의 소용돌이속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80년대를 돌아볼때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은 양적·질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79년 6kg에 불과하던 1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이 근 2배에 가까운 11kg으로 늘었고, '79년 3두에 불과하던 호당 돼지사육규모도 25두로 늘어나 전업화가 급속히 진행돼 왔습니다. 또한 '80년대에 우리는 한국 최초로 종돈능력검정사업을 실시해 돼지개량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사양, 질병, 사료, 육종, 시설 등 각 분야에서 기술향상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대폭 높아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돈농가들은 생산자 조직인 협회 조직을 확대해 권익보호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산업발전에 이바지 해 왔습니다. '87년에는 양돈인들의 숙원이었던 양돈회관을 건립하였고, 검정사업을 확대할 제 2 검정소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90년대를 맞는 시점에서 양돈산업을 되돌아볼때 우리에게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경기순환의 탓으로만 돌릴 수 없는 최근의 돼지값 폭락과 서울 한복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박5일간의 도축장 차상계류문제는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할 한국양돈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치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양돈업의 등록·허가제로 대변되는 '80년대의 규모간 갈등 현상은 축산법 개정을 통해 마무리 단계에 있으나, 이로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외국과 싸움을 시켜 놓고 한쪽 손을 못쓰게 하는 것은 공정치가 못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외국에 비해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배합사료 등 축산 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의 영세율 적용이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산업화의 급속한 진행과 더불어 분출되는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의 삶의 욕구로 축산분뇨 배출단속은 더욱 강화돼 양돈업의 입지를 좁히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무자비하게 진행되는 농축산물 수입개방압력은 우리 농촌의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는 이미 쇠고기의 저가 대량방출로 인한 돼지가격의 폭락, 돼지고기통조림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산업피해 구조조정신청으로 명백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같은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90년대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양돈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업은 양돈 바로 그 자체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닥치더라도 우리의 생업을 포기하거나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이를 물리치거나 해결해야 하며,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90년대의 양돈여건은 '80년대에 비해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양돈산업이 성장산업으로 남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선진외국과 경쟁을 하여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정부가 외국과 싸움을 시켜놓고 한쪽 손을 못쓰게 하는 것은 공정치가 못한 처사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양돈농가들이 외국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국에 비해 과중하게 부과되고 있는 배합사료를 비롯한 축산원자재에 대한 관세·부가세는 빠른 시일내에 영세율 적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불황 때마다 되풀이 되는 도축장의 차상계류와 같은, 외국에서는 듣도 보도 못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육가공산업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우리나라의 양돈산업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와 함께 우리 양돈인들도 이제는 모든 문제를 남에게 맡기던 관객의 입장에서 벗어나 주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산업발전에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돼지가격의 주기적인 폭락을 비롯해 양돈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90년대의 산업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에 소속된 소속원들이 결정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속원들은 자신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스스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러나 개인의 힘은 미약하므로 그 구체적인 행동은 생산자단체인 협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너도나도 제각각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생산자단체를 통해 합일된 목소리를 내야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협회에서도 우리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직시하고 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랜기간동안 생산비 이하로 형성된 돼지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90년대의 양돈산업 발전에 다함께 동참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